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변화: 분야별 지표와 주민 생활 변화 사례¹⁾

김유리 | 베트남 호찌민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부 전임교수 | kimyuree@gmail.com

I. 서론

베트남경제는 1980년대 후반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혁신)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개혁과 개방정책의 효과로 1990년대 이후 30여 년간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이러한 베트남의 경제발전은, 1990년대 이후 핵문제가 지속되면서 경제 회복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참고 사례로 중국과 함께 자주 거론된다. 공산당 주도의 정치체제를 유지한 채 경제 개혁과 개방으로 발전을 이룬 사례로서 북한에 매력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북한경제는 핵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성장을 모색할 만한 환경과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여하한 상황 변화나 방법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사라질 경우 북한경제의 변화와 발전 역시 매우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문제 해결을 가정하여 개혁과 개방이 진행될 북한경제의 발전과 변화를 추정하거나, 또는 핵문제가 없었다면 북한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을지 예측해 보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핵문제가 없다면, 또는 해결된다면, 북한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과 협력은 과거 베트남의 도이머이 이후 상황과 유사하거나, 또는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북한이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경제발전과 사회적 변화, 특히 주민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난 30여 년간 베트남이 이루어 온 사회경제적 변화를

1)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AKS-2022-OLU-2250002).

살펴봄으로써 비추어 짐작해 보고자 한다.

베트남은 1990년대 이래 개혁과 개방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며 확대해 왔고, 이는 베트남경제와 주민의 생활을 급속하게 변화시켜 왔다. 본문에서는 주로 베트남 사회경제 주요 분야별로 가용한 지표를 통해 나타난 변화 추이를 설명한다. 인구, 소득, 소비, 보건, 여가, 주거, 인프라(교통, 통신), 교육과 직업 등 분야별 주요 지표와 함께, 성장에 따라 크게 향상되어 온 베트남 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변화를 선별적으로 설명하여 제시한다. 지표의 통계나 사회적 변화의 시간적인 기준은 도이머이 선언 이후 몇 년이 지나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시작하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있는 경우 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하여 그 이전인 2019년까지로 한정하였다. 가용한 지표 중심의 분야별 변화를 살펴본 후, 주민들의 삶의 변화 양상에 더욱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경제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몸소 체험한 베트남 사람들의 스토리를 일부 소개한다. 획기적인 변화 사례로 언론에 언급된 유명 사업가 사례들과,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 주민들의 모습을 가상으로 재구성하여 간략히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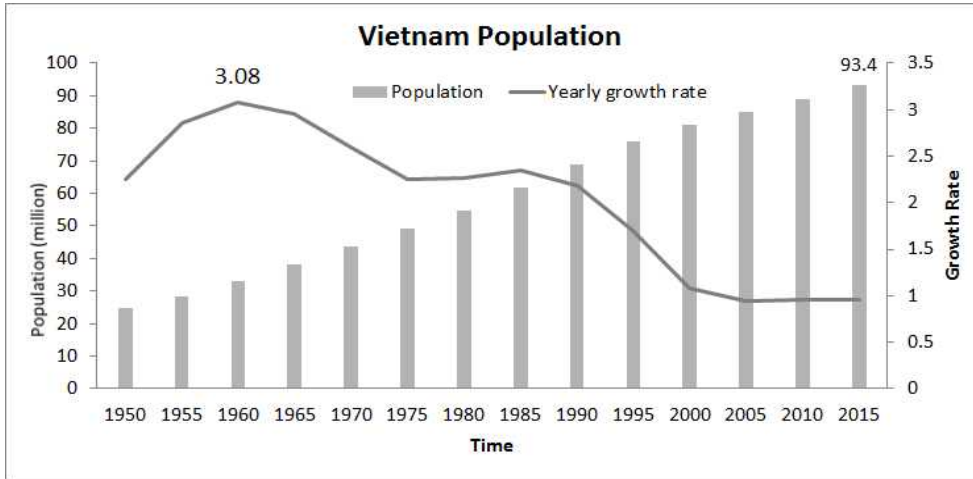
II. 개혁·개방 이후 분야별 변화 추이

1. 인구

베트남의 총인구는 1950년 약 2,800만명이었던 것이 1970년 약 4,340만명, 1990년 약 6,800만명, 2010년 약 8,800만명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현재도 총인구는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인구 성장률은 1950년대 2.5%에서 2000년을 전후하여 1.3%, 2015년 이후 1.0%로 점차 저하되었다(그림 1 참조). 베트남 통계총국(General Statistics Office: GSO)에서 파악한 2021년 베트남 총인구 추정치는 9,851만명으로 1억 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인구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출생률이 저하되고, 기대수명은 증가하여 낮은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021년 기준 베트남 인구 추정치 9,851만명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50.2%와 49.8%이고, 출생 성비는 남아와 여아 비율 113.8 : 100이며, 출생 당시 기대수명은 평균 73.7세에 이르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도시 인구나 농촌 인구는 각각 37.1%와 62.9%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아직 농촌 인구가 많은 편이다(GSO, 2021년 인구, 노동 및 취업률, 2021).

[그림 1] 베트남 인구 및 인구증가율 변화



자료: 'www.Worldometers.info'에서 발췌 제공한 자료를 <https://www.researchgate.net/>에서 재인용(검색일: 2024. 5. 20).

전국 평균 거의 74세에 이르는 베트남의 기대수명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산율은 점차 줄어들어 평균 2명에 가깝게 되었으나, 모성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기대수명이 늘면서 아직 인구의 증가 추세를 견인하고 있다. 1950년 52세에 불과했던 기대수명은 2019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서 76.2세, 농촌지역에서 72.6세로 증가하였고, 여성이 76.3세, 남성이 71세를 기록하였다. 영아 사망률은 1999년 1천명당 36.7명에서 2019년 14명으로 감소하였고, 모성 사망률은 2009년 산모 10만명당 69명에서 2019년 4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2019년 기준 베트남 출생률 및 사망률 추이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SO), 2019년 인구 및 주거 센서스의 20개 주요 지표 인포그래픽스 발췌, 2019.

베트남정부에서 2019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 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과 이미 정착한 도시 또는 농촌 거주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모두 강하게 나타났다. 도시화가 진행 중인 베트남에서는 처음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후, 도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옮기는 이동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으로 만 20~39세에 속한 인구가 32.5%를 차지하는 베트남에서는 학업 또는 취직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 20~30대 청년층이 이러한 인구 이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과 청년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목적에 따라 단순 이사, 혹은 결혼하면서 이동하는 흐름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GSO, 2019년 인구 및 주거 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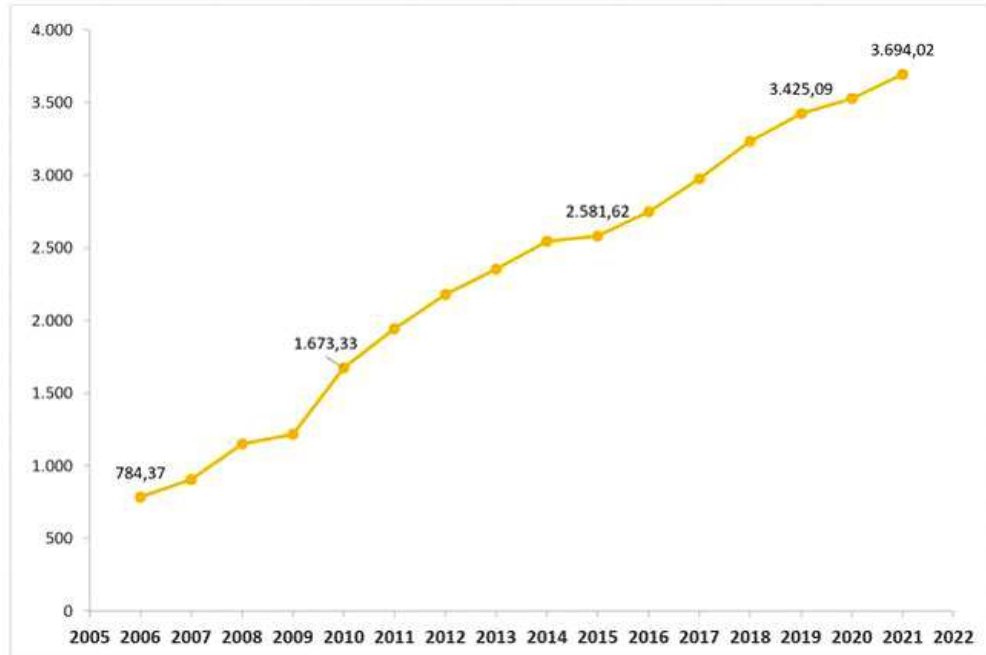
베트남의 도시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총인구의 약 18%가 호찌민과 하노이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는데, 북부 및 중부 고원지대 청년들이 하노이나 호찌민으로 이주하는 흐름이 확대되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부 호찌민시로, 거의 9백만명의 인구가 집중되어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현재 평균 가구원 수는 3.5명으로 3~4인 가구가 약 1,300만 가구를 차지해 가장 많으나, 호찌민시 등 대도시와 주변 산업단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소득

2019년을 전후하여 베트남의 1인당 연간 평균 GDP는 약 3,000달러를 넘어섰다. 1986년 이후 시작된 경제성장은 초기였던 1980년대 후반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1990년대부터는 1인당 GDP가 꾸준히 증가했고, 2000년대 이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그림 3 참조). 1990~2019년 사이 연평균성장률은 6.8%가 넘으며, 2010년대 이후로는 평균 6.3%로 다소 둔화하였다고 하나 여전히 빠른 성장을 지속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은행 계좌나 카드 사용 확산이 늦는 편이고 현금거래 문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베트남 통계총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의 30%에 이를 것으로 보기도 한다. 통계로 나타나는 GDP 규모와 성장에는 개인이나 가구단위 소규모 경제활동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데, 베트남에서는 전체 생산의 87.7%, 국가 총고용시장의 32% 정도를 개인 또는 가구의 영세한 경제활동이나 자영업이 차지한다고 추측되고 있다.

[그림 3] 베트남 1인당 GDP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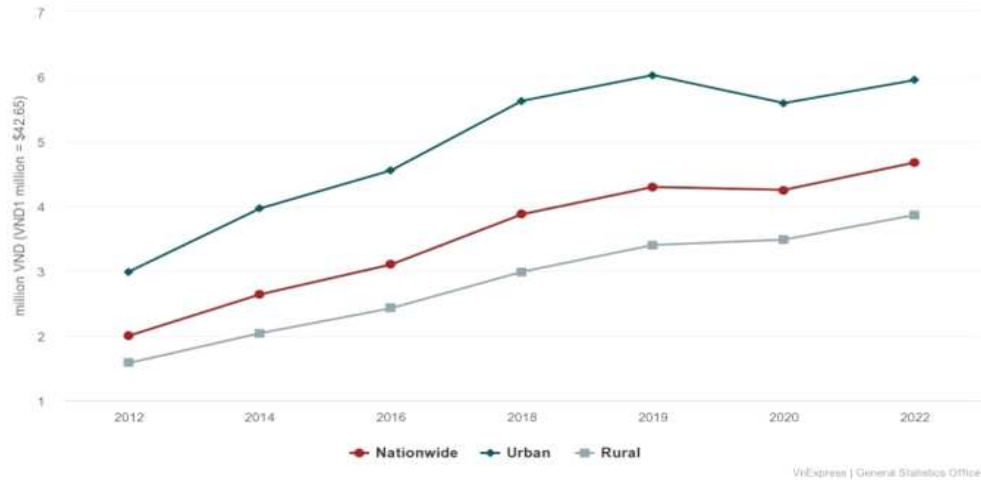


자료: 포브스(Forbes) 자료를 보도한 비나타임즈, 「베트남 1인당 GDP 지난 15년 동안 가장 인상적으로 성장」, 2022. 11. 26 재인용.
(<https://www.vinatimes.net/news/548083>, 접속일: 2024. 5. 20).

2019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1인당 월별 평균 소득은 560만동(약 240달러)이고, 이 중 대학 졸업자의 월별 평균 소득은 930만동(약 400달러)으로 추정되었다. 연도와 지역에 따라 임금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월별 평균 소득은 계속 증가하였고 2015년 이후로는 연평균 약 6.8% 증가 추세를 보였다. 도농 격차가 심해서 도시지역의 평균 소득이 농촌지역보다 약 1.6배 높다(그림 4 참조). 지역별, 업종별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취업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

하루 최소 11달러 이상 소비하는 중산층은 2000년에는 전체의 10% 미만이었으나 최근 약 40%까지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리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하루에 30달러 이상을 소비하는 최상위 부유층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어,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리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하루 소비 1.9달러 미만의 빈곤율은 1980년대에 60%에 육박했던 데에 비해 2019년 기준 5% 미만으로 감소하여, 빈곤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불평등 심화, 양극화 등 소득 증가에 따르는 새로운 문제들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림 4] 가구당 월평균 소득 변화(전체, 도시지역, 농촌지역)



자료: VN Express 자료를 보도한 뉴스핌, 「베트남 소득격차 '심각'...상위 20%, 하위 20%의 7.6배」, 2023. 5. 9 재인용.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09000085>, 접속일: 2024. 5. 20).

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대도시지역으로, 호찌민, 하노이, 빈중(Binh Duong) 성, 하이퐁(Hải Phòng) 시 등 해외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한 지역이다. 호찌민 시의 1인당 평균 GDP는 2018년 6,000달러를 초과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베트남 국내 기업의 성장보다는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가 증가한 데 따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남부 호찌민 시 근교의 빈중 성은 대규모 산업단지과 해외 제조업체 공장 유치로 1인당 높은 소득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북부 하이퐁 시의 소득이 높은 것도 주요 경제구 중 하나로서 LG, General Electronic 등 해외 제조업체들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성일 · 이재호, 2016, p.19).

베트남은 1997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고 해마다 인상해 왔다. 2019년 기준으로 호찌민 시, 하노이 등 대도시지역에서 최저임금은 418만동(약 165달러)이었다. 매년 국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공표하고 있다.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동남아 주변국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었기에 인상률이 높은 편이었는데, 2013년도에 17% 정도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안정 및 해외직접투자 유입 둔화를 우려하여 계속 감소하였다(조재한 · 정선인, 2016, p.12). 2019년 전후로는 인상률이 5% 정도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시기에는 동결하기도 하였다. 분야와 직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베트남 노동자들의 임금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복지와 여가 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3. 소비 패턴

베트남은 세계 15위, 아세안 3위의 인구 대국이며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고, 인구 대부분이 아직 젊은 세대이므로 소비 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30대 청년 비중이 높아 상품과 서비스 소비시장으로의 중요성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패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소매유통 채널의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 중이다.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재래시장 문화가 이어지고 있어 2020년 기준으로 재래시장이 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대식 유통 채널 22%, 전자상거래가 4.3%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해 동남아시아 전체의 재래시장 평균 비중이 56.3%임을 생각할 때 아직 재래시장의 비중이 큰 편이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신선식품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은 점차 현대식 유통 채널로 이동하는 추세다(한국수출입은행, 2022, pp.1~2).

현대식 유통은 슈퍼마켓, 편의점, 백화점 등이며 재래시장보다 가격은 높지만, 도시화로 인한 소량 소비, 위생을 중시하는 경향 등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인구와 주요 소비층의 선호에 비해 아직 현대식 유통 채널의 비중이 작고 급속하게 늘어나는 중인 바, 앞으로의 소비시장으로서의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예상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비중은 2019년에는 2.9%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3%로 증가했고, 이후로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변화하고 있는 베트남 소매유통 채널들의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주민들의 대표적인 소비재인 휴대전화(스마트폰) 소비시장은 초기 급성장 시기를 지났고, 수요가 점차 안정되고 고급화하는 추세다. 내구소비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휴대전화시장은 2000년대 초중반에 핸드폰을 처음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2009년경 신규 판매가 정점에 달한 후로 신규 구매는 감소하고, 재구매하거나 고급화된 제품을 찾는 경향에 따라 판매량이 등락을 거듭하였다. 2014년을 전후하여 스마트폰 판매가 급증하였는데, 종전의 저가 피쳐폰을 비교적 고가인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량과 매출액이 동시에 상승하였다. 대체로 중저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는 삼성, 애플 등 고가 스마트폰 소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베트남 성인 거의 모두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70%를 넘어 디지털 잠재력이 대단히 높게 평가된다. Viettel, MobiFone 등 주요 통신사들이 호찌민 시와 하노이 같은 대도시에서 2021년 전후부터 5G 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온라인 시장도 함께 성장세이다. 2020년에는 SIM

<표 1> 베트남 소매유통 채널별 현황 비교

유통 채널	현황
슈퍼마켓 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기준 슈퍼마켓은 5,812개, 대형 마트는 63개가 영업 중 • 호찌민, 하노이 등 대도시에 집중 (55%는 호찌민과 하노이에 위치) • 슈퍼마켓은 거주지 인근, 대형 마트는 넓은 부지, 낮은 임대료를 찾아 교외에 위치 • 대중교통이 부진하고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이라, 도시 거주자들은 대형 마트보다 접근성 높은 슈퍼마켓을 선호 • 슈퍼마켓은 로컬기업 중심으로, Co.opMart 40.5%, VinMart 26.5%, BHX(Bach Hoa Xanh) 17.9% 순 (2020년 기준) • 대형 마트는 외국기업 중심으로, Big C(태국) 61.8%, 롯데마트 20.1%, AEON(일본) 8.1% 순 (2020년 기준)
편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기준 편의점은 1,030개 영업 중 • 거주지역에서 재래시장, 동네 소형 식료품점과 경쟁 • 실내 냉방, 쾌적한 착석 공간, 다양한 즉석식품 등으로 20~30대 이용률 증가 • 대도시에서 카페, 은행 등을 결합한 다기능 점포로 변화 • 주요 사업자는 써클K(미국), B's Mart(태국), 패밀리마트(일본), VinMart+(베트남)으로 해외기업이 편의점 시장을 주도 (약 70%) • 외국계 편의점은 관광지, 주요 상권, 외국인 거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
백화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기준 백화점은 총 18개 영업 중 • 복합쇼핑몰 확대, 전자상거래 확대, 코로나19 봉쇄 등 입지 축소 및 경쟁력 약화 • 주요 사업자는 일본기업 Aeon, Takashimaya 등, 2020년 점유율은 Aeon 62.7%, Takashimaya 12.2%, Robins(태국) 8.5% 순 • 말레이시아계 Parkson 백화점, Takashimaya 백화점 등은 상류층을 대상으로 고가 제품을 판매하나 구매력 있는 소비자 수 제한 등으로 성장 둔화 • Takashimaya 백화점은 2016년 1호점을 오픈한 이후 확장하지 못하고 고전 중 • Aeon은 백화점 타겟 소비자를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같은 공간에 함께 운영하며 시장지배력 강화
복합쇼핑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 오락, 사회적 활동을 위한 문화적 방문지로 부상 • 전자상거래의 부상과는 별개로 다양한 필요를 충족, 경험 제공을 위해 대형화 추세 • 호찌민 Vincom Mega Mall의 면적은 49,000㎡ 평방미터, 2024년 오픈한 롯데몰 하노이는 72,000㎡ • 쇼핑몰 총면적을 총인구수로 나눈 '1인당 쇼핑몰 임대 가능 순면적(NLA)'은 아직 동남아 인근 국가 대비 낮으므로 성장잠재력이 풍부 • 향후 대중교통이 발달하면 복합쇼핑몰 방문객은 더욱 증가 예상 (하노이 최초의 지상철인 2A노선은 2021년 11월 개통, 호찌민의 전철은 2022년 예정이었다가 지연되어 2024년 7월 예정)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19억달러 규모이며 1인당 구매액은 240달러 수준 • 전자제품, 패션 상품 중심이었으나 최근 식재료 구매 비중도 증가 • 대도시 집중된 구조로 2020년 하노이와 호찌민의 전자상거래 비중은 70% (2025년까지 하노이와 호찌민 외 지역 비중을 50%로 확대 추진) • 전자상거래 플랫폼(Shopee, Lazada Tiki, Sendo 등)과 SNS 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Zalo 등) 중심으로 확대 • Shopee는 싱가포르계 기업, Lazada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자회사이며, Tiki와 Sendo는 로컬기업 • SNS 플랫폼은 진입장벽이 낮아 개인과 소상공인이 SNS를 통해 제품을 판매 •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송서비스 업체를 많이 이용하며, 물품 수령 시 소비자가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Cash on delivery 방식이 보편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베트남 소매유통·관광산업 현황 및 전망」(2022)에서 발췌 정리.

사용률이 137%에 달한다고 할 정도로 베트남 모바일 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하였다. 젊은 세대가 모바일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는 나라가 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여행과 이동, 음식 배달 등의 시장도 동시에 더욱 확대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로 진화하고 있다.

가전제품시장은 2000년대 이후 소득 증가와 시장 확대로 소비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 소비자와 젊은 세대의 소비 성향이 계속 변하고 다양화되면서 가전제품시장의 경쟁도 심화하였다. 2000년대 들어 도심과 농촌 모두에서 컬러 TV의 보급이 일반화되었고, 동시에 DVD 플레이어,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인기 품목이 되었다. 2010년대에는 해외 수입이 증가하고, LG나 파나소닉 등 해외 업체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생산을 확대하면서 소비시장이 함께 변화하였다. 2010년대 중반 세탁기는 LG, 일렉트로룩스(스위스), 산요(일본) 등이, 냉장고는 LG, 삼성, 산요, 히타치, 샤프(일본) 등이, 전자레인지는 산요, 샤프, 일렉트로룩스, 파나소닉, 전기밥솥은 샤프, 쿠쿠, 도시바, 파나소닉 등 현지 투자 업체들의 제품이 시장을 넓혀갔다. 에어컨 판매량도 늘어나 다이킨(일본),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의 중저가 제품이 많이 팔렸고, 이어서 점차 절전과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증가하였다(KOTRA 해외시장뉴스 트렌드, 2015. 8. 17).

2020년대 들어 냉장고의 경우 삼성, LG가 현지 생산량을 확대했고, 지방 보급도 확대하면서 판매가 더 증가하였다. 베트남 젊은 세대가 최신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고급 모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세탁기는 고소득층 소비자를 위한 첨단 모델이 출시되기 시작하여 드럼세탁기나 대용량 세탁기 수요가 증가했고, 에너지 절감, 특수 의류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는 추세다. 주방 기구의 경우 식기세척기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트렌드에 따라 전자레인지 소비는 감소 추세지만 스마트 블렌더, 에어프라이어 등의 소비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위생에 대한 관념과 기준이 높아지면서 진공청소기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고, 필수 소비재가 된 에어컨은 베트남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 간 가격 대비 품질 경쟁이 심화함과 동시에 공기 청정 기능 등이 다양화되면서 소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건강과 보건

보건분야는 세계은행에서 베트남을 성공적인 발전 사례로 평가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되는 분야이다. 베트남의 전반적인 보건수준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인 영아 사망률은 1993~2020년간 천명당 32.6명에서 16.7명으로 감소, 기대수명은 1990~2020년간 70.5세에서 75.5세로 증가, 그리고 전 국민의 87%가

국가 의료보험 혜택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세계은행 베트남 소개, 2023년 4월 업데이트). 199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모성 사망률도 75%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베트남 전체 인구의 약 73%는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이 되고 있으며, 국가 통계에 따르면 HIV/AIDS 신규 발병 또는 관련 사망 건수, 결핵 신규 발병 건수도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앙정부 주도로 1990년대 초부터 백신 접종, 영양 관리, 식품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 왔고, 공공의료 예산은 주로 깨끗한 물 공급과 위생에 집중되었다. 개혁 초기부터 기초적인 건강과 예방에 초점을 두어 백신, 위생 관리, 영양 관리, 모성 건강 등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초기부터 예방 접종률이 매우 높아서 주요 질병을 퇴치하거나 급감시키는 성공을 거두었다. 어린이 백신 접종률은 1990년에 이미 90% 이상을 달성하였고, 출산 여성의 90% 이상이 훈련된 건강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의료 종사자 급여는 개혁 전에는 협동농장 단위에서 지급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인식과 보건의료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구 1명당 건강 관련 비용 지출도 아울러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국가 의료보험 가입률이 높고 정부의 보건 관련 예산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정에서 따로 지출하는 의료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개혁 초기에 공공의료수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양질의 의료를 찾는 경향으로 개인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여, 1990년대 전체 의료비의 70% 이상이 개인 지출이었고, 1998년에는 80%에 육박하였다. 1995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정부가 부담한 의료보건 예산이 약 30%, 개인적 지출이 50% 정도 분포로 나타나다가, 2006년 이후부터 비중이 정부 40%, 개인 40%로 비등해졌고 2014년 이후로 정부 예산의 비중이 50%를 넘기 시작하였다(Vigani and Dudu, 2021, p.4). 사실 민간 병원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운영되며, 도시의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비용을 더 내더라도 외국계 또는 민간 의료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전국 단위 행정구역 별로 운영하는 공공의료시설은 공급 대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환자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공공의료와 민간(외국계 포함)이 결합되어 있는 의료 및 보건 체계로 인해 의료보험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건강보험과 민간 보험회사들이 운영하는 사설 건강보험이 모두 꾸준히 확대되었다. 국가의 사회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1990년대 말에는 10% 내외였으나 2013년에는 70% 정도로 증가하였다.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는 사설 보험은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인구 5% 정도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IMF, 2020,

pp.14~15).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확대로 보편적인 접근과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의 수요와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화하면서 소득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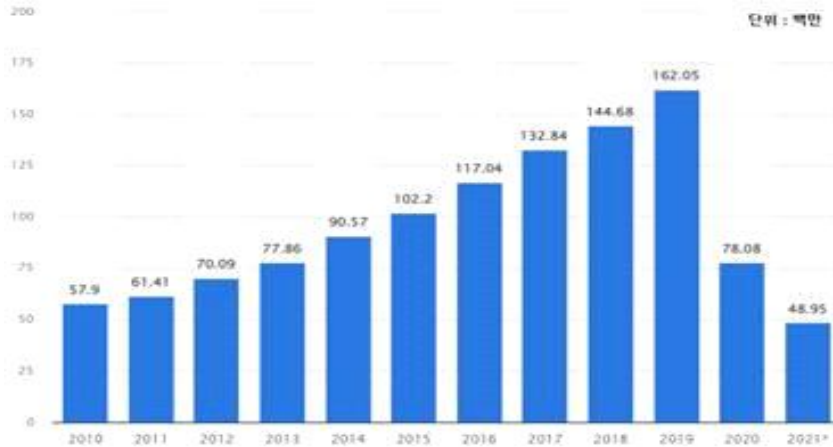
5. 여행과 여가

베트남 주민의 국내 여행은 201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 가운데 공휴일도 적고, 주말 근무도 많아서 주민의 여가나 여행은 매우 완만하게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국내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국내 관광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국내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여행도 동반 성장하였고, 국내 여행의 경제적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확대하였다. 2010년대부터 레저, 비즈니스 및 문화 목적의 국내 관광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총인구의 증가, 중산층 확대 등 경제 규모와 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내 관광객 수는 크게 확대되었고, 2019년을 전후하여 내국인 관광객 수 1억 6천만명을 넘어서면서 2010년 대비 약 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2020년 초부터 확산한 코로나19와 봉쇄조치 등이 관광을 크게 위축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경제발전과 함께 급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정부는 최근 여가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바, 향후 국내 여행과 여가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숙박 등 인프라 개선, 여행 수요의 다양화 등 여행과 여가를 즐길 만한 여건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별로 목적지와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한 각급 정부의 지원과 투자 유치도 지속되고 있다. 하노이, 호찌민, 후에, 호이안, 하롱베이 등 이미 국내외에 알려진 관광지 시설을 현대화하고, 국내 관광객이 성장을 선도하여 해외에까지 점점 알려지는 사파, 달랏, 풍나케방 국립공원(생태관광)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냐짱(나트랑), 다낭, 푸꾸옥 등 해변 리조트 시설에 국내 관광객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관광산업이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관광은 기존 관광 형태를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모험 관광, 미식 관광, 웰니스 관광, 문화 몰입 체험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림 5] 2016~21년간 베트남 내국인 관광객 수 변화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기지개를 켜는 베트남 관광시장」, 2023. 4. 10 재인용.

베트남 국민이 해외를 방문하는 해외 여행은 경제성장에 따라 어느 정도 소득이 늘어나고 여가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 2000년대 이후부터 크게 성장하였다. 1990년대 개혁 초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해 해외 여행도 제한적이었고, 해외를 여행하더라도 순수한 여가보다는 사업, 유학 또는 공적인 목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0년대를 지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베트남 내국인의 해외 여행이 크게 늘어났고, 개방 확대와 인프라(특히 항공) 개선에 힘입어 여가 목적의 해외 여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저가 항공사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등장으로 해외 여행은 더욱 활성화되었고,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에 적응한 젊은 세대의 해외 여행 증가로 여행 형태도 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베트남 주민들의 해외여행 목적지는 우선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부담이 덜한 동남아시아가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동아시아, 서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유럽 순이다. 베트남정부의 여행 제한 완화 후 주민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통, 숙박 등 비용이 절감되고, 비자 절차가 수월한 국가들로 우선 해외 여행을 떠나고 있고, 이런 추세에 힘입어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이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어 왔다.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동남아시아를 넘어 일본, 한국, 유럽 주요 도시 등으로 목적지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문화 체험, 쇼핑, 교육 등 여행 목적도 다양화되었다.

외식 문화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외식비로 쓰는 청년층이 확대되면서 트렌드가 다양화되고 있다. 음식점, 카페, 배달 등 여가와 결합한 외식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패턴은 아침과 점심을 밖에서 해결하고 저녁은 주로 집에서 먹는 것이다. 이런 특성상 15~35세 남성의 점심 식사가 베트남 음식점 문화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다양한 식음료의 도입, 여가와 결합한 식음료 문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와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패스트푸드나 커피전문점이 많이 늘어났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피자헛, 피자4Ps, KFC 등 해외 프랜차이즈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고급 레스토랑부터 저렴한 길거리 음식까지 선택의 폭이 매우 다양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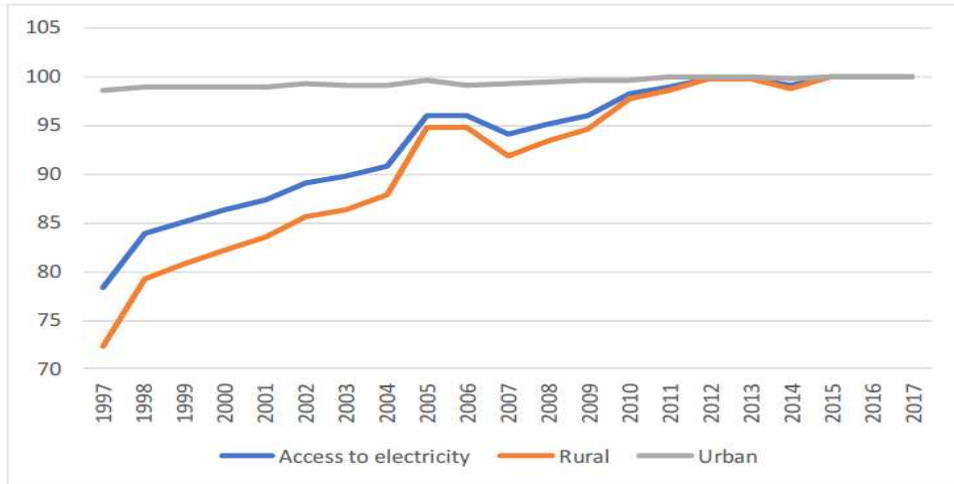
고급 식당의 경우에는 베트남 전통식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고, 서양식 고급 레스토랑의 확장세는 비교적 느린 편이다. 2010년대 중반까지도 외식 문화의 상당 비중을 관광객과 외국인이 차지했으나, 최근 베트남 내국인 중산층이 핵심 고객층으로 부상하였다. 중산층 젊은 소비자와 여성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커피 체인점이나 카페를 겸하는 베이커리가 인기를 끌고, 무선 인터넷과 에어컨 시설, 새로운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추세로 인해 외식 문화가 복합적 공간 사용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이에 더하여 풍부한 인력과 오토바이 문화를 바탕으로 Grab Food 등 음식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였고,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배달 문화가 주요 식음료 소비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다.

6. 주거, 수도와 에너지

베트남의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전통과 대가족 문화로 인해 대도시에서도 다가구나 빌라 형태의 거주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중산층과 소규모 가구를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갖춘 수상복합형 아파트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도시화 진행에 따라 도시 인구 비율이 1989년 약 20%였던 것이 2019년 기준 약 35%에 달하면서 특히 호찌민 시, 하노이 등 대도시의 주택 수요가 급증하였다. 대도시나 근교 산업단지에서는 젊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가구를 위한 중저가 주택 공급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대가족이 분화하여 3~4인 핵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하노이, 호찌민 시 등 대도시 외곽에 건설되는 신도시 공동주택 대부분은 아파트와 빌라 형태이며, 대단지 건축이 급격히 늘어났다. 대도시 아파트는 수영장, 헬스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경비 인력이 배치되어 치안이 안전하다는 점에서 중산층이 선호하는 형태다. 부동산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예도 증가하였다. 고학력자,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스튜디오나 소규모 아파트 수요도 증가했고, 정기적으로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서비스 아파트먼트에 대한 선호도 증가하였다.

[그림 6] 베트남 인구 대비 전력 접근성의 변화



자료: 세계은행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Vietnam's Development Success Story and the Unfinished SDG Agenda," IMF보고서, 2020, p.13
재인용.

수도 시설과 물 공급 문제는 접근성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었다. 도시 및 농촌 가정의 수도 접근성에 대한 공식 통계는 2002년에 78.1%, 2016년에는 93.4%에 도달하였다(IMF, 2020, p.5). 그러나 깨끗한 물 공급은 아직도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베트남정부 통계상 2016년 기준으로 인구의 87.5%가 건강에 무해한 위생적인 물(sanitary water)에 접근하였고, 그중 약 49%가 가정용 사용이 가능한 수질 규정에 맞는 깨끗한 물(clean water)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러나 도시의 경우 산업시설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폐수의 12.5%만 처리되는 상황)하고, 대부분 농촌지역은 가축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수질오염문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농촌지역은 2019년에도 약 20% 정도만 수도물을 사용하고 상당수가 빗물, 우물 등을 사용하여 수질문제가 심각하였다. 베트남정부는 농촌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 천명하고 있고, 2030년까지 60%, 2045년까지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주민들은 수질에 대한 불신이 높은 편이고, 이로 인해 정수기와 생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정수기의 경우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고가의 수입 제품부터 베트남 내에서 조립된 저렴한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었다.

전력 에너지 공급의 경우 베트남 국민 1인당 전력 소비가 최근 십여 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발전, 송전, 배전 역량이 함께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베트남의 전력 에너지분야는 개도국 개발 사례 중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인정되는 분야로, 송전, 배전 중 전력 손실률이 국제 기준으로도 매우 우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받는다. 1995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전력 소비는 약 11.3배 증가했고 이후 2018년까지 불과 4년 사이에 1인당 전력 소비가 29.1% 증가하여 2018년에는 1인당 1,981.1kWh에 육박하였다. 베트남 국영전기공사 EVN(Electricity Vietnam)은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전력 2,200kWh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IMF, 2020, p.13~15).

개혁 초기 199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었던 베트남에서 이제는 전체 가구의 98% 이상이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다. 도농 간 차이가 있지만 농촌 지역도 1990년 50% 미만이었던 수준에서 2018년경에는 거의 100% 도달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력망의 빠른 확산은 정부의 통제에 기반한 저렴한 전기료 덕분이기도 하다. 요금 체계 개편이 자주 있는데, 대체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로부터 높은 전기료를 받고, 가난한 사용자들과 서민들에 대한 전력 공급을 보조하는 구조다. 물론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비해 공급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더운 시기를 전후하여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도 자주 있고, 주변 국가로부터 임시로 전력을 사 오는 등 꾸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7. 교통과 통신 인프라

베트남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게 두드러진 부분이 인프라 개발이다. 인프라 개발은 꾸준히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되었고, 급속한 산업 발전과 제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인프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0년경부터는 인프라 관련 정부 재정 지출이 매년 GDP의 약 8%를 차지하고 있고, 추가로 대규모 인프라 관련 국영기업(EVN 전력공사 등)의 투자가 매년 GDP의 약 5%를 차지하는 등 인프라 투자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시설 구축과 개선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교통분야에 국가 전체 투자의 9.6%가 집중되어 제조업(27.4%) 다음으로 큰 규모의 투자 금액이 집중된 분야이기도 했다(Vigani and Dudu, 2021, p.3).

초기 교통, 전력 및 통신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은 경제 전반에서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소득원과 일자리를 다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90년대 초부터 해외 원조로 교통망, 전력망 개발을 본격화하였고, 초기에는 주요 도로를 항만 및 공항과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서로 연계하고 개선하면서 경제성장의 거점(도시 및 산업단지)과 농촌지역을 연계하고, 소외된 지역까지 전력과 교통 접근성을 높이며, 주요 도로와 지방도를 연결하면서 빈곤 감소와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남북으로 긴 해안선을 끼고 있는 베트남의 지형적 특성상 항만 개발에도 상당한 원조가 투입되었다. 물론 큰 규모의 투자라고 하여 반드시 효율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교통분야에 투입된 자본과 시간에 비해 건설 공사 성과나 유지 관리, 서비스의 품질이 그만큼 개선되지는 못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인프라 투자 중에서도 특히 도로망 구축이 우선적인 지원 대상이다. 권영인 외(2019)에 따르면, 도로 개발 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은 2018년 기준으로 16개 노선 906km이며, 2030년까지 총 고속도로 연장을 6,411km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구역도로(District Road), 농어촌도로(Commune Road), 도심부도로(Urban Road), 특별도로(Special Road) 등 도로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연계망을 건설하고 있다. 아직 미완성인 고속도로망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2030년까지 설정한 목표를 맞추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많다(이하 철도, 공항 등 권영인 외, 2019, pp.45~60에서 발췌 정리).

철도 개발의 대표적인 노선은 하노이와 호찌민 시를 잇는 북남 간선철도로, 최종적으로는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하노이와 호찌민 시에서는 각각 도시철도(전철)을 건설 중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총 2,524km의 철도 구간은 대부분이 협궤이며, 일부 표준궤와 이중궤(중국 - 유라시아 연계 노선)가 있고 모두 단선이고 비전철 구간이다. 가장 중요한 구간인 하노이 - 호찌민시를 잇는 북남 간선철도 구간의 가장 빠른 급행열차 속도는 55km/h로 약 31시간 소요되는데, 이는 불량과 노후화문제 때문에 속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북남 철도의 속도를 시속 160~200km로 운행하고, 2050년까지 시속 350km의 고속철도 기반 시설 준비를 하는 것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하노이에 2022년 말 첫 메트로(지상철) 노선을 개통하였고 노선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호찌민 시는 2024년 7월경 첫 노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추가 건설이 계획 중이다.

공항 인프라는 2019년 현재로 볼 때 국제공항 10개, 국내공항 12개 등 총 22개 공항이 운영 중이다. 10개 국제공항 중 가장 수요가 높은 호찌민시의 떤선녓(Tan Son Nhat) 국제공항, 하노이 노이바이(Noi Bai) 국제공항과 다낭(Da Nang) 국제공항, 깜란(Cam Ranh, 나트랑) 국제공항이 4대 국제공항으로 일컬어진다. 4개의 베트남 항공사가 총 53개의 국내 노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개의 베트남 항공사 및 63개 국제 항공사가 28개국 130개 이상의

〈표 2〉 베트남 주요 인프라 관련 투자 프로젝트 현황

사업 종류	사업 현황
남북 고속도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2017년~20년) : 2023년 8월 말까지 지출액 57조 2,760억동으로 계획의 87.1% 달성 • 2단계 (2021년~25년) : 2023년 8월 말까지 지출액 32조 7,020억동으로 계획의 59.7% 달성 • 총투자액 약 200조동(약 85억달러)에 이르는 남북 고속도로를 2025년 말까지 완전히 연결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진행이 지연
동서 고속도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 카인호아(Khanh Hoa) - 부온마투옷(Buon Ma Thuot) 고속도로, 남부 비엔호아(Bien Hoa) - 봉따우(Vung Tau) 고속도로, 찌우닥(Chau Doc) - 칸토(Can Tho) - 속짱(Soc Trang)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총투자액 약 85조동(약 36억달러) • 2023년 8월 말까지 지출액은 7조동으로 계획의 8.2%를 달성
롱탄(Long Thanh) 국제공항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화 상태에 이른 떠선녓 국제공항을 보완, 대체하기 위해 호찌민 근교 롱탄(Long Thanh)에 예정하고 있는 국제공항 프로젝트(1단계) • 2023년 8월 여객터미널 설비 건설 및 설치 입찰(금액 약 15억달러), 활주로, 유도로, 항공기 계류장 건설 및 설치 입찰(금액 약 3억 7천만달러) 실시
전력(발전소)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전력공사(EVN)는 Nha may Thuy dien laly Mo rong(수력), Nha may Thuy dien Hoa Binh Mo rong(수력), Nha may Nhiet dien Quang Trach I(화력)의 3개 전력 발전소 건설 시행 중 • 동시에 Nha may Thuy dien Tri An(수력) 및 Nha may Thuy dien tinh nang Bac Ai(양수식 수력발전소) 투자 절차 시행 중
지능형 교통 시스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와 주요 도심 도로에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구축에 대한 공공투자 예정 • 2026년~30년 내 고속도로 약 5,000km를 ITS를 통해 관리·운영 목표

자료: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23년 베트남 공공투자 현황」, Vietnam Report, 한국무역협회, 2023의 내용을 정리.

국제 노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과 서비스가 크게 발전하고 있으나 폭증하는 수요에 비해 항공기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공항 규모와 시설 역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많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신(ICT) 인프라 또한 빠르게 개선되어, 1995년 이래 통신시장은 2008년까지 매년 약 79%씩 성장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외국 회사들에 시장을 개방하였고, 2010년에 농촌까지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평균 100명당 전화 16개에 이르고(대가족 문화를 생각하면 상당한 수준), 인터넷 서비스 보급률도 2배가 되는 등 상당한 속도로 성장하였다. 광대역 인터넷은 2010년 인구 100명당 4.2건이었던 것이 2018년 13.6건으로 확대되었다. 이동전화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0명당 147.2건으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개인 인터넷 이용률은 2018년 인구 대비 70.4%로 증가하여 대부분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베트남의 이동전화 보급량은 세계 141개국 중 14위에 이르렀고, ICT 보급(ICT adoption)은 WEF 기준 69.0점으로 세계 141개국 중에서 41위를 차지하였다(이충열 외, 2020, p.163).

최근 정보통신 인프라는 확장과 개선 속도가 괄목할 만하다. 2021년 기준 개인 인터넷

이용률은 74.2%에 이르렀고, 젊은 세대의 수요 급증에 따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인다. 국민 1인 소득 대비 모바일 인터넷 비용은 세계 평균의 1/3 수준으로 저렴하여 사용자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은 67.8%였는데, 당시 태국이 65.5%, 인도네시아 64.8%, 필리핀 60.7%, 중국 59.9%, 인도 43.5% 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시아 개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구태영 & 이상원, 2022).

8. 교육과 직업

교육은 도이머이 선언 이래 꾸준히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분야로 투자와 개혁이 이루어졌다.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 해독률은 2016년에 95%를 넘어섰다. 베트남의 정규교육은 유치원부터 시작되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단계(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성)를 거치게 되어 있다. 대학교육에는 2년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있으며, 대학원 교육은 석사과정 2년과 박사과정으로 구성된다.

1992년 EFA(Education For All)를 채택하여 1993년에서 2000년까지 시행했고, 두 번째 EFA를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했다. 1차 EFA 시기에는 양질의 초등교육을 의무화하였고,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했다. 문자 해독과 같은 기본교육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성인을 위한 교육과 훈련도 제공되었다. 2차 EFA 시기에는 세부적인 5개 목표가 추진되었는데, 교육의 질적 향상, 보편적 초등 및 중등 교육(의무화), 평생교육, 모든 국민의 참여(all for education), 효과적 관리와 자원 활용 등이다(IMF, 2020, pp.10~13). 공공 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과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GDP 중 공공 교육 지출의 비율이 2000년 3.5%에서 2015년 6%로 증가하였다. 공공 교육은 정부 재정을 주요 재원으로 하되 1990년대에는 원조 지원금이 10% 정도를 충당하였고, 교육기관 운영과 초등교사 양성에 우선 투자하면서 중등교사 양성도 지속해서 병행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교육정책과 베트남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결합하여 베트남의 3~5세 어린이의 92% 이상이 유치원에 등원하게 되었다. 초등 취학률은 2000년대 초반에 80%를 넘었고, 2016~17학년도에는 99.7%가 초등교육을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아동은 고른 남녀 성비를 보이고 있고, 중등 교육 취학률도 2000년 이래 2배 이상 증가하였다(IMF, 2020, p.5). 최근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하여 학생 수 증가추세가 안정되면서 어린이나 학생 1인당 좀 더 많은 자원 투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교사 1인당 학생 비율도 1995년에는 평균 35명이었으나 20명 정도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그러했듯이, 베트남 역시 신속한 빈곤 탈출을 위해서는 급속한 제조업 성장, 도시화 등 상황과 수요에 부응하는 성인 교육과 기술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어린이, 청소년 교육과 병행하여 성인 교육을 동시에 강조하였는데, 학령에 따른 어린이와 청소년 정규교육만으로는 그들이 성장한 후 노동시장에 투입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밖에 존재하고 있던 청소년이나 이미 졸업한 성인의 기본 교육과 기능 교육이 시급하였다.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주요 분야의 숙련 노동력 수요에 부응하고, 평생교육원이나 커뮤니티 교육센터 등 대도시 위주의 직업 교육 센터나 특수 훈련 센터를 증가해 나갔다. 점차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서북 지역과 중부 산간, 메콩 델타에도 교육센터가 확대되고 있다.

기본 교육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 베트남의 직업 교육이나 기술교육, 대학교육은 개선할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업 교육이나 기술 훈련에 참여하는 성인 노동력의 비율은 약 6%로, 한국의 27%나 다른 OECD 국가들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대학교나 기술 학교 취학률이 아직 낮고 자퇴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학생이 평균 40%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진학 비용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대학교에 투입하는 재정적 지원은 GDP의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학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향상되고 사립대학도 증가하고 있는데, 대학별로 교육 및 연구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면서 해외 대학과 학생 교환이나 유학을 위해 노력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다. 대학원 과정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교류 강화의 일환으로 아예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거나 해외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예도 있고, 해외 대학의 캠퍼스가 개교하는 사례도 많다. 2000년 호주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가 첫 해외 대학으로 개교하였고, 2009년 British Vietnamese University, 2016년 The US Fulbright University 등이 개교한 바 있다(Vigani and Dudu, 2021, p.4).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젊은 세대들의 방향성과 경쟁 양상도 변화를 거듭해 왔다. 선호하는 직업이나 고용 구조는 국영기업의 축소, 민간기업 증가, 농촌으로부터의 인력 유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및 대도시 중심의 서비스업 성장, 도시화 추세 등에 따라 빠르게 변화했다. 국영기업은 1989년에 12,000여개였던 것이 2016년경에는 600개 미만으로 감소했고, 반면 민간기업 설립을 독려하면서 특히 서비스업은 많은 경우에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다양한 자영업군을 형성하였다(IMF, 2020, p.5).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농업 인구 유출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1980년대 후반 1천3백만명이 채 되지 않았던 도시 인구가 3천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하노이, 호찌민 시 등 대도시와 주변부의 산업단지(호찌

민시 인근 동나이, 빈중 등)에 젊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확대에 따라 해당 분야의 고용이 증가하여 대규모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2017년을 전후해서는 전체 노동력 중에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하로 축소되었고, 서비스업이 그에 육박하는 비중으로 증가하였다.

산업구조 변화와 젊은 세대의 노동시장 진출에 따라 선호 직업군도 변화해 왔다. 개방과 발전에 힘입어 국제 교류, 금융, IT 관련 직업이 선호 직업으로 부상하였다. 국내외 이동규제가 완화되고 해외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무역 전문가, 관광 가이드, 통역사, 번역사 등이 유망 직종으로 떠올랐다. 특히 관광객이 급증하고 지역별로 관광과 숙박업이 급성장하면서 대학에도 관광학과, 관광전문대학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관광업 관련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은행, 보험, 전자상거래, 물류 등도 주목받고 있고, 향후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고급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 관련 직업도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직종과 학과가 인기를 끌고, 스타트업 열풍의 60%는 IT 관련 스타트업이다. 베트남정부도 IT전문가 배출을 독려하고 있으며 고소득이 보장되는 직군으로 선호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직업 선택의 기준도 또다시 달라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콘텐츠와 함께 성장한 베트남의 젊은 세대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야를 선호한다. 대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나 회사 생활을 병행하는 데 익숙한 베트남의 젊은 세대들은 두 개 이상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 초년생들은 더 많은 경험과 진로 탐색 차원에서 투잡(two job) 이상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대다수 구직자가 임시직이나 단기적인 일을 하면서 자율성과 유연한 근무를 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역량과 선택 직종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다. 기존 세대와 젊은 세대 간 디지털 역량 차이로 인한 업무 역량과 기술 격차문제도 쟁점이 되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와 고소득 직업군일수록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환경과 사회적 영향 등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III. 개혁·개방 이후 주민 생활의 변화 사례

앞서 베트남의 주요 분야별 경제지표와 사회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야별 발전은 경제성장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적응해 온 베트남 주민의 생활과 삶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여기에서는 개혁·개방과 이어진 경제성장으로 달라진 베트남 주민의 삶과 생활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사례와 스토리를 소개한다. 베트남이나 해외 언론에서도 인생 역전 사례로 적극 소개한 바 있는 유명 사업가 사례 중 세 건을 먼저 소개하고, 이후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생활하게 된 일반 베트남 주민들의 몇몇 모습을 가상으로 재구성하여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1. 유명 기업가 사례

부동산 투자로 시작해 IT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업가 Nguyen Thi Kim Duc의 스토리는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투자 기회를 잡은 여성의 사업가 정신과 비전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론에 소개되었다.

HTD 미디어 그룹 창립자인 Nguyen Thi Kim Duc은 1970년대 하노이에서 성장하였다. 어린 시절 예술가를 꿈꾸었으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실용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했다. 고교 졸업 후 취업하려 했지만, 저임금 직원으로 일하기보다는 창업하기로 결심하고 저축한 돈을 털어 1990년대에 사업을 시작하였다.

몇몇 품목을 사고파는 거래로 사업을 시작하여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한 후, 저축한 돈을 기반으로 부동산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하노이 도심에서 가까우나 인구가 적었던 주변 지역 부동산에 투자하였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찾아 부동산에 계속 재투자하였고, 30세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남성 지배적이던 부동산분야에서 성공한 여성으로 도전의 아이콘으로 조명을 받게 되었다.

자금을 활용할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2015년부터는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콘텐츠 제작, 소셜네트워킹서비스,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및 소프트웨어 제작 등을 하는 IT회사 HTD Media를 설립한 것이다. 기술 투자에서 더 나아가 예술 투자 펀드를 만들어 수천 점의 예술 작품에 투자했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조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매매를 빠르고 쉽게 만드는 서비스를 선보이려 계획 중이다. 도시화로 인한 환경 피해를 완화하는 조림 사업에 기부하여 5년 동안 약 20만그루의 나무 심기를 하기도 했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등 성공한 개인으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범 사례로 총리 표창을 받았다.

(자료: Forbes Asia, “Nguyen Thi Kim Duc: 베트남 사업가의 성공스토리,” 2019. 발췌)

베트남 ‘커피의 왕’으로 알려진 사업가 Dang Le Nguyen Vu의 스토리는 1990년대에 새로 시작하던 카페 사업에서 기회를 잡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G7 커피로 잘 알려진 Trung Nguyen Group의 창립자로, 2012년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포브스에 보도된 바 있다.

1986년 정부의 도이머이 개혁이 시작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Dang Le Nguyen Vu는 베트남의 전형적인 산간 마을에서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고 돼지를 돌보며 벽돌을 만드는 어머니를 도왔다고 한다. 베트남 커피의 수도라고 불리는 Buon Ma Thuot에 있는 대학교의 의예과 과정에 입학했으나, 3년 차에 의사보다는 당시 발전하기 시작한 커피산업에서 기회를 찾기로 결심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1996년 작은 건물의 한 칸에서 첫 번째 로스터리를 시작하면서 ‘Trung Nguyen’ 간판을 달고, 수익금을 공유하겠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커피콩 재배 농가들로부터 납품을 받아 자전거로 커피 배달(곧 오토바이로 업그레이드)을 시작하였다. 1998년 호찌민 시에 첫 카페를 오픈하였는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프랜차이즈 모델로 운영을 확장하였다. 2003년을 전후하여 인스턴트커피 G7의 급성장으로 베트남의 커피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2012년 G7 커피는 베트남 내 최대 시장점유율과 판매량은 물론, 네슬레보다 선호하는 인스턴트커피로 인정을 받는 인기 브랜드가 되었다. 3,000명의 직원, 42개의 직영 카페, 트럭 유통망을 운영하며 다른 브랜드의 카페나 식료품점에도 납품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원두 재배, 로스팅, 가공 및 수출 등을 종합한 ‘클러스터링’ 전략을 추진하며 확장을 가속화하였고, 거칠고 값싼 로부스타 원두가 주종인 베트남 커피의 품질을 높이고 부드럽고 값비싼 아라비카 생산 면적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커피 재배 국가는 가난하고 커피산업의 이익을 네슬레나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이 가져가는 고질적인 구조를 탈피하고자 직접 수출하고 미국,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2012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커피 왕’으로, 포브스에서 ‘Zero to Hero’로 소개되면서 베트남의 커피 왕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

(자료: Forbes, “Chairman Vu, Vietnam's Coffee King” (2012) 및 온라인 자료 발췌)

베트남 최고의 ICT 기업으로 알려진 기술 회사 FPT Corporation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인 사업가 Truong Gia Binh은 베트남 소프트웨어 협회를 설립하고 IT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 건립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에 Nikkei Asia Award를 수상한 유명 인사로, 베트남 IT산업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56년 출생으로, 1979년 구소련(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로모노소프(Lomonosov) 국립 종합대학교 기계수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에 동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수학 박사 논문에서부터 베트남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만한 회사를 세우고자 하는 포부를 나타냈다고 한다.

1991년 귀국하여 부교수로 임명되었는데, 그 이전인 1988년 베트남 과학자 12명과 함께 FPT Corporation의 전신인 FPT 식품 가공 기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후 FPT가 베트남 최고의 ICT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베트남 내 63개 성 중 59개 성과 해외 22개국에서 약 30,000명의 직원을 보유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세를 확장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300대 기업으로도 선정되기도 하였다.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기업의 위상과 경쟁력으로 IT 기술을 이끌겠다는 사업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 2013년에 자신의 회사인 FPT 발전과 베트남 전체 IT분야에 대한 공헌으로 Nikkei Inc.가 수여하는 Nikkei Asian Award를 수상하였다. FPT Corporation 이사회 의장, 베트남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협회(VINASA)의 회장 등을 역임했고, 베트남의 IT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의 결정과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료: Nikkei Asia 300 Global Business Forum 홈페이지(2016) 및 온라인 자료 발췌)

2. 일반 시민의 생활 변화 예시

언론에서 주목한 유명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베트남 일반 주민의 삶도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발전 과정에서 범위나 수준이 크게 변화하였다. 아래 4명의 스토리는 모두 가상의 인물과 가상의 생활을 재구성한 것으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아세안 시장 인구 트렌드 관련 보고서(2022, pp.27~29)에서 발췌 참조하였다.

첫 번째 스토리는 대도시 근교에 살고 있는 Bich 씨(40대 후반)의 이야기로, 산업단지로 부상한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자녀를 교육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된 경우다.

Bich 씨는 호찌민 시 근교 동나이(Dong Nai) 성에서 남편과 함께 현지 로컬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식당 운영을 하면서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개혁 개방에 따라 동나이 지역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외국기업이 투자하면서 젊은 노동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Bich 씨와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침과 점심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다.

시장 개방과 함께 다양한 식자재에 접근성이 향상되어 로컬 도매상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화되면서 음식의 품질도 개선되었다.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메뉴의 다양성을 높였고, 젊은 고객층에게 적합한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도 높아졌다. 베트남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세금 혜택이나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었다.

식당도 확장하고,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직원도 여럿 고용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하면서 Bich 씨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 공원에서 라인댄스 동호회에 운동을 하기도 하고, 사진 동호회(사진 수업)에 가입하여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자녀들에게는 방과 후 사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늘리게 되었다. 막내는 사립 유치원(영어유치원)에 보냈고, 더 나은 교육 기회를 갖게 된 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도 커지게 되었다. 식당 운영이 안정되면 장차 장남에게 식당을 물려줄 생각이었으나, 대학까지 보내고 새로운 기회가 많아진다면 식당보다는 회사원이나 전문직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스토리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An 씨(30대 후반)로, 도시의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의 삶을 살게 된 경우다.

An 씨는 호찌민 시내 국립대학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강사이다.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로, 자녀 2명의 교육에 관심이 많고 특히 외국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내는 것이 목표다.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영어 교육 열풍이 불었다. An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을 진학하면서 영어를 전공으로 선택했는데, 졸업 후 좋은 직업을 가질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과거와 달리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특히 호찌민 시에는 사업, 유학, 거주 목적의 외국인 인구가 폭증하면서 영어로 외국인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다.

An 씨는 영어로 베트남어를 가르치면서 강사로서 안정적 수입을 보장받게 되었다. 호찌민 시내의 국립대에서 베트남어 강사로 경력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사설 어학원에서 개인 과외를 하는 등 추가적인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계속 증가했다.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한 An 씨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사립 영어유치원에 보냈고, 국제학교에 진학시키지는 못했지만 방과 후 교육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보내면서 영어 교육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An 씨의 자녀들은 해외 유학을 목표로 입시 컨설팅을 받고 필요한 시험 점수나 스펙을 쌓기 위해 관리하고 있다. 호찌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도록 독서 토론 클럽 등을 활용하기도 하면서 국제적인 시야와 감각을 갖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세 번째 스토리는 대도시의 고소득 전문직으로 자신의 사업을 개척하면서 국제적인 온오프라인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Ha 씨의 생활이다.

하노이에서 패션 브랜드를 창업한 여성 Ha 씨(30대 초반)는 하노이 서호 근처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며, 자녀 한 명을 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다. 여행과 의류에 많은 소비를 하고, 애플 제품과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등 트렌디한 소비를 즐기는 편이었다. 개방이 확대되면서 해외에서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라이프 스타일이 증가했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국제적인 유행과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층

이 형성되었다. 과거와 달리 개인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 증가했는데, 특히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다.

Ha 씨와 같이 고소득층에 속하는 패션 종사자들은 창업을 시도하고 도전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 최신 패션 트렌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여,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를 창업하여 온라인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어서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사업을 확대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젊은 사업가로 온라인 채널에 소개되기도 했다.

개방과 함께 외국 명품 거래도 확대되면서 Ha 씨 개인적으로도 취향에 따라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은 애플의 충성고객으로 신제품을 늘 먼저 소비한다. 경제발전에 따라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필라테스와 같은 문화생활에 지출이 늘어났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상품이나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체험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스토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일하면서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Nguyen 씨로, 특히 대학의 인기 학과인 한국어 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 관련한 국제적인 직업을 원하는 학생의 스토리를 재구성하였다.

하노이에 있는 한 글로벌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Nguyen 씨(20대 초반)는 열정적인 사회 초년생으로, 한국어 학과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일하면서 취업 준비 중이다. 대학에서 인기 전공인 한국어 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급여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급증하던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서 K-pop, K-드라마 등 한국 관련 문화적 체험이 많았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학 전공으로 한국어 학과를 선택했다. 베트남의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 시스템도 확대 발전되면서, 경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한국어 전공을 설치하는 대학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높은 관심과 취업을 덕분에 최고 인기 학과가 되었다. Nguyen 씨는 우수한 고등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공으로 입학했다.

한국어를 습득하여 졸업하면 취업 경쟁력이 높다. Nguyen 씨는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한 스펙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취득했다. 대학 졸업 후 신입 직원의 초임은 낮은 편이지만 한국어를 하는 경우 조금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한국어 학과 졸업자로서 비교적 높은 급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방과 국제 교류 확대로 문화 소비도 국제화되었고, Nguyen 씨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뷰티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화장품과 액세서리 소비를 선호한다.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면 한국에 방문할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IV. 결론

1986년 도이머이 선언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 온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개방은 지난 30여 년간 사람들의 삶과 생활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전까지 계획 경제 시스템에 기반하여 중앙정부의 계획과 보조금으로 지탱하던 베트남의 경제는 개혁과 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분화되고 확장되면서 글로벌 경제체제에 편입된 시장경제로 탈바꿈하였다.

국제 관계의 변화와 경제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발전을 견인하였고, 2010년을 전후하여 저소득국에서 (하위) 중소득국(lower middle - income countries) 분류되는 등 성장세를 이어 왔다. 세계은행(WB)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는 베트남 경제발전을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Vigani and Dudu, 2021, p.3). 중소득국이 된 2010년 이후에도 베트남경제는 2011~18년까지 연평균 6.2%의 GDP 성장률을 보였다. 1986년과 비교한다면 2020년 기준 GDP는 약 12배, 국민 1인당 GDP도 약 8배 증가한 셈이다. 교역액은 약 30배로 확대되었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약 22배, 외화보유액은 1997년 대비 약 48배 증가했다고 한다(인사이드비나, 2021).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베트남도 타격을 입었고, 부정부패나 지역별, 분야별 격차 등 다양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베트남경제는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정부는 2045년까지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2021년 1월 제13차 베트남공산당 당대회 결의문에 따르면, ‘베트남의 남부 해방 및 국가통일 50주년’인 2025년까지 1인당 GDP 5천달러를 달성하여 (하위)중소득국을 벗어나 선진국 진입을 추진할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다가오는 2030년이 ‘베트남공산당 설립 100주년’인데 이를 전후하여 (상위)중소득국에 진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산업화된 고소득 선진국이 되겠다는 것이 목표다(베트남 픽토리얼, 2021. 3. 13).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그 이후로 점차 가속을 붙여 온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비슷한 시기 내내 핵문제가 지속되어 개혁도 개방도 추진하기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지표상 수치의 변화로 나타난 발전도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급속한 발전에 적응하고 인생의 목표와 반경을 넓혀가며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리게 된 주민들의 자기 주도적이고 다양화된 삶의 변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경학적 위치나 잠재력을 고려할 때 베트남 못지않게, 혹은 더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평가되는 북한경제가 비슷한 기회를 잡을 경우, 사회경제 지표나 주민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30여 년 전의 시작과 그간의 과정에서 베트남이 경험한 발전의 맥락과 향후 북한이 경험할 수도 있는 발전의 그것은 물론 매우 다르겠지만, 비교적 가까운 사례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대상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성일, 이재호, 『주요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6.
- 구태영, 이상원, 「베트남 핀테크 시장의 부상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Brief, 2022.
- 권영인·안강기·서영욱,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9.
- 김부열, 김성훈, 『베트남 경제이행에 따른 기업생산성 변화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 201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아세안 시장 인구 트렌드와 기회 요인』, Global Market Report, 2022.
- 이충열 외,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0.
- 인사이드비나(Inside VINA), 「『괄목상대'...도이머이 선언 후 35년 베트남경제의 변화』, 2021. 1. 27.
- 정재완, 김제국, 『베트남의 수출 고도화 배경과 전망』, KIEP 기초자료 18-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8.
- 조재한, 정선인, 「베트남 노동비용 상승과 진출 전략에 관한 시사점」, 『ISSUE PAPER』, 2016-417, 산업연구원(KIET), 2016.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23년 베트남 공공투자 현황」, Vietnam Report, 한국무역협회, 2023.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23년 베트남 산업단지 현황과 전망」, Vietnam Report, 한국무역협회, 2023.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베트남 소매유통·관광산업 현황 및 전망」, 『2022 이슈보 고서』, 한국수출입은행, 2022.

베트남 정보통신부 해외 정보 서비스 콘텐츠 자료 www.vietnam.vn
베트남 통계총국(General Statistics Office, GSO) 통계 자료.
KOTRA 해외시장 뉴스 베트남 관련 조사 자료.

- Baum, Anja, “Vietnam’s Development Success Story and the Unfinished SDG Agenda,”
IMF Working Paper WP/20/31, 2020.
- Forbes (Forbes Asia), “Chairman Vu, Vietnam's Coffee King,” July 25, 2012.
- Forbes Asia, “Nguyen Thi Kim Duc: A Vietnamese Entrepreneur’s Success Story,” August
30, 2019.
- Vigani, Mauro and Hasan Dudu, “Demand Analysis of Multiple Goods and Services
in Vietnam,”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October 2021.